

화물연대 파업 12일째...타이어업계 '삼중고'로 휴업 고려

생산·운송 차질·원재료 수급난까지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타이어업체, 파업으로 출하 못한 타이어 이날 하루 15만5000여개 추산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를 맞아 타이어업계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산·운송 차질에 이어 원재료 수급난까지 우려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업체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는 이날 하루 15만5000여개로 추산된다. 한국타이어는 파업 전 충남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에서 각각 5만개씩 총 10만개 타이어를 생산했다. 이 중 하루 6만~7만개를 컨테이너 트럭으로 부산항에 보냈다. 한국타이어는 그러나 이날 기준 평상시 대비 절반 정도인 3만5000여개를 출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상황도 심각하다. 파업 전 광주공장, 평택공장, 곡성공장에서 1일 총 9만개 생산했는데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감산에 들어가기도 했다. 타이어 완성품 재고가

늘어나며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이 하루 생산하는 타이어의 30%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광주공장은 하루 3만3000개 생산에서 2만여개로 줄이고, 곡성공장은 3만2000개에서 2만7000여개로 줄인다. 금호타이어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휴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센타이어는 파업 전 경남 양산 및 창원공장에서 각 5만여개, 3만여개 타이어를 생산했다. 그러나 현재 절반 정도인 3만5000~4만개 타이어만 부산항으로 출하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체코에 공장이 있지만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해외공장 생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생산을 해야 한다. 현재 타이어업체들은 생산 후 출하하지 못

한 타이어를 공장 내 물류창고에 따로 보관 중이다. 하지만 타이어는 제품 부피가 크다보니 공장내 물류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타이어업체들이 생산량 자체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외국내 타이어 대리점과 완성차업체에도 도미노처럼 파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타이어업계에서 생산하는 타이어의 70%는 교체형, 30%는 오리지널이무먼트로 완성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로 판매된다. 타이어업계는 완성차 제조사에 타이어 공급을 최우선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업체에 배송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타이어 원재료나 부재료의 경우, 아직 재고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확보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통상 타이어업체들은 3~4개월치 원재료를 미리 확보해둔다. 원재료는 외부와 내부 창고에 각각 보관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가져오는 원재료를 창고로 싣고 오는 문제나 내·외부 창고간 운송

문제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배송이나 재료 운송 문제는 용달차 등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결국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트럭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최이슬기자

온수 기능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싱 L10 가스보일러'

AI가 온수 사용패턴 학습해 빠른 출탕



귀뚜라미는 스마트 온수 기능을 장착해 온수 품질을 극대화한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싱 L10 가스보일러'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싱 L10 가스보일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低NOx) 국내 기준 1등급이다. 환경부 친환경 인증 기준인 에너지소비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20ppm 이하 등을 충족한다.

특히 소비자가 온수를 사용하는 시간을 보일러가 학습해 온수를 준비하는 '스마트 온수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스마트 온수 기능은 사용자의 시간대별 온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해 빠른 온수를 내보내는 시스템이다. 수일에 걸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예상 시간 30분 전부터 열교환기를 예열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온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인 저탕식 열교환기는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 온수 출탕이 빠르고, 욕실이 2곳인 가정에서도 풍부한 온수를 동시에 공급한다. 온수 품질을 좌우하는 친환경 메탈하이퍼(금속 섬유) 버너의 불꽃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해 대용량의 온수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소량의 온수를 사용할 때도 소비자가 원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이번 신제품은 전통적인 귀뚜라미의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계승하는 저탕식 제품이다. 열전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강화마루나 대리석이 깔린 바닥과 넓은 평수의 가정에서도 빠른 난방을 구현할 수 있어 온돌 난방에 최적화했다. 귀뚜라미보일러의 고유 기술(발명특허 제 10-1845856호)인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로 구성된 2중 안전시스템을 본체에 내장해 보일러 내부 가스누설이나 강한 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최고급 사물인터넷(IoT) 실내 온도조절기(NCTR-200WIFI)를 기본 장착해 최대 4명까지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보일러 상태 확인, 조작, 고장 진단 등 기본 기능은 물론, 음성 안내, 차일드 락 등 편의성을 높인 부가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고강도 금속·목재 절단...보쉬, 바이터보 충전 컷쏘 출시

1110W 출력...금속 자재 최대 150mm 절단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는 고강도의 금속과 목재 절단이 가능한 전문가용 바이터보 충전 컷쏘 'GSA 18V-28'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GSA 18V-28은 보쉬의 프리미엄 바이터보 기술이 적용돼 최대 출력이 1100W 유선급에 달한다. 강력한 파워로 목재는 최대 230mm까지, 금속 프로파일과 파이프는 150mm 깊이까지 절단이 가능하다. 최상의 절단 작업을 위한 주요 기능도 갖췄다. 톱날에는 별도의 도구 없이 한 손으로 날을 장착할 수 있도록 원터치 시스템이 적용됐

다. 목재를 절단할 때는 절단 속도와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오비탈(orbital) 기능이 있다. 오비탈이란 작업날이 두 가지 액션(회전+직선 등)을 동시에 하며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면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한 벽에 가깝게 붙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본체는 일자형으로 설계됐다. 핸들은 손의 굴곡에 맞춰 곡선으로 디자인됐다. 제품 상단에는 공구를 걸어 보관할 수 있는 고리가 장착돼 보관이 쉽다. 보쉬 전동공구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31



일까지 '보쉬제일검' 구매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기간 내 GSA 18V-28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등록하면 카바이드 금속용 컷쏘날 'S1155CHM' 2개를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는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다. 김재환기자

롯데하이마트, 오는 19일까지 할인행사

강추위 속 난방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1일부터 4일까지 판매된 히터, 요장판 등 난방 가전의 매출은 직전 주 같은 기간(올해 11월24일~11월27일)보다 약 190% 늘었다. 특히 히터 품목은 약

310%, 요장판 품목은 약 75% 성장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날씨가 영하로 푹 떨어지면서 따뜻한 난방 가전을 서둘러 구매하는 소비자층이 늘고 있다"며 "가정 뿐 아니라 사무실, 야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하

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 가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19일까지 겨울 가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일, 한일, 위닉스 등 히터, 가슴기 인기 브랜드 제품을 최대 4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요장판 행사 상품은 한정수량으로 최대 45%까지 할인한다. 서선욱기자



푸드 테크 '널담', 크리스마스 시즌 '슈톨렌'

기술 기반 비건 식품 스타트업 널담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독일 전통 과일 케이크인 '슈톨렌'을 자사 온라인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널담 슈톨렌은 450g의 여유있는 양으로 직접 만든 마지펜(밤 페이스트)과 럼주에 숙성한 레몬 껍질, 크랜베리, 건포도, 견과류 등이 들어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깊은 풍미가 특

징이다. 여기에 분리대두단백과 유청단백을 넣은 고단백 슈톨렌으로 설계했다. 겨울 디저트의 달콤함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널담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GS25 편의점에서 배지테리언 마카롱을 선보이며, 다양한 비건 디저트의 강점과 매력을 알리고 있는 중이다. 오유나기자

한샘, 생활용품 80%·주방용품 91% 할인

2022년 베스트셀러 생활용품 할인전

한샘은 오는 31일까지 연말 맞이 생활용품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말 프로모션은 생활용품관을 운영 중인 방배점, 잠실점, 목동점, 부산센텀점, 대구범어점 등 전국 17개 한샘디자인파크와 온라인 한샘몰에서 진행된다. 한샘 오프라인 생활용품 프로모션은 ▲2022년 베스트 생활용품 연말결산전 ▲연말 성탄 선물전 '메리 크리스마스' ▲겨울침구 할인전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은 키친웨어·패브릭·소가구 등이다. 올해 베스트 생활용품 연말결산전에서는 ▲유리피인 구스 이불 등 침구 ▲식기건조대 등 키친웨어 ▲휴지통·빨래건조대 등 생활용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된다. 유럽에서 온 '시그니처90 시베리아구스 이불'이 최대 70만원, 식기건조대 20여개 품목은 최대 45% 할인된다. 또 '그림 빨래건조대'와 '컴팩트 빨래건조대' 등은 최대 68%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연말 성탄 선물전 '메리 크리스마스'에서는 다양한 테이블웨어가 최대 58% 할인 판매된



다. 겨울침구 할인전에서는 통째로 세탁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림이불과 겨울철 따뜻한 숙면을 즐길 수 있는 '보코 순면 따끈 온열매트' 등 침구가 최대 65% 할인 판매된다. 한샘몰에서는 생활용품, 주방용품, 홈케어 등 할인 이벤트가 열린다. 생활용품 브랜드워크는 매주 가전, 수납, 패브릭, 조명,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특가 판매한다. 주방수납 정리용품 기획전에서는 한샘몰 MD(상품기획자)가 엄선한 주방선반, 식기건조대 등 주방용품을 최대 91% 할인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 홈케어는 '윈터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최대 20% 할인 가격에 가구·가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시스